

■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 심의일시 : 2020년 7월 16일 13:00~17:00
- 심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 : 신승오, 안소연, 임산, 조습, 채우승

본 사업은 만 35세 이하 차세대 유망예술가(작가, 큐레이터)가 다양한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 방법으로 심층 조사연구하여 최종적으로 수준 높은 창작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을 지원하는 취지로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1차·2차 심의에서 지원대상 연구생 6인(작가 4인, 큐레이터 2인)을 선정하였다.

이번 3차 심의에서는 연구생들의 최종발표 지원금 규모 결정을 위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행한 조사연구 단계(개별 리서치, 사전 제작, 멘토링 등)에서의 연구생들의 활동을 최종발표계획서 사전검토와 심의회의 현장에서의 PT를 진행했다. 전담 심의위원회 5인은 조사·연구의 충실성(20%), 예술적 우수성 및 차별성(30%),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30%), 성취도 및 파급효과(20%) 등의 심의기준(가중치)에 의거하여 상호 심층적인 토의를 거친 후, 5개의 평가등급에 따른 심의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선정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참여의 동기를 뚜렷하게 유지하며 각자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대부분의 연구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들은 선발 당시의 계획에 대비하여 더욱 발전되고 심화된 단계에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만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거나, 계획 구현을 위한 적합한 조사연구를 치밀하고 알차게 실천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그 과정에 주목하면서, 최종발표의 계획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주제, 발표장소 운영안, 예산, 참여인력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고려하였다. 특히 작가 연구생의 경우에는 창작에 대한 미학적 성찰의 깊이, 최종발표 전시구상의 현실성과 완성도를, 그리고 큐레이터의 경우에는 전시총괄자로서 지녀야하는 창의적인 기획력과 구체적인 준비성의 발전 정도를 중점 평가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심의의 결과, 본 사업 자체의 목적과 해당 3차 심의의 취지에 따라 최종발표지원금의 차등 배분을 결정하였다.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연구생의 최종발표계획에 대하여는 연구생이 신청한 예산규모를 감하여 지원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위원 전원이 합의하였다. 최종발표의 주제의식이 사업 초기 대비 심화 발전되지 못하였고 계획 역시 전반적으로 모호하여 실제적인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가치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모든 연구생이 각자의 계획과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우수한 최종발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